

정부 '脫석탄 정책' 효과 전무

미세먼지를 내뿜는 주범 가운데 하나라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유연탄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전세계 석탄 소비 증가를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이 지목되고, 정부의 '탈(脫)석탄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에너지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유연탄 수입량은 1억3천152만톤으로, 전년에 세웠던 역대 최고 기록(1억3천146만)을 또다시 경신했다. 2016년(1억1천847만)과 비교하면 11.0% 늘어난 수치다.

수입액도 전년(134억8천만달러)보다 8.7% 늘어난 146억5천달러(16조5천억원)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수입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국들이 공급을 줄이는 바람에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유연탄 평균 수입가는 1당 111.41달러로, 전년(102.54달러)보다 8.7% 상승했으며 2년 전(68.95달러)과 비교해서는 무려 60% 이상 올랐다.

이처럼 유연탄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분철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등 이른바 '탈 석탄'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발전용 등의 소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석탄 소비량은 약 1억5천만톤으로, 전년



미세먼지 공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유연탄 수입량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최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발전 폐쇄 캠페인' 장면. /전남도민일보DB

유연탄 수입량 2년 연속 역대 최고치 기록

IEA "한국, 세계 석탄소비 증가 주도" 지적

보다 11.5%나 증가했다.

다보스포럼은 이 통계를 근거로 한국을 인도,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세계 석탄 수요 증가세를 견인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신사전 화력을 비롯해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강릉안화력 1·2호기 등 약 7.2GW(기가와트)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석탄 소비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

한 사회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유연탄 사용량을 낮추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유연탄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석탄발전 연료비 부담도 커졌다"며 "에너지세제 개편과 온실가스 거래비용 등이 반영될 경우 석탄을 더이상 경제성이 뛰어난 연료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급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석 기자 nicepen@

공공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시장

1월 주택 매매 거래량 65개월만에 최저치

소비심리지수도 전월보다 하락한 90 기록

주택 거래량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늪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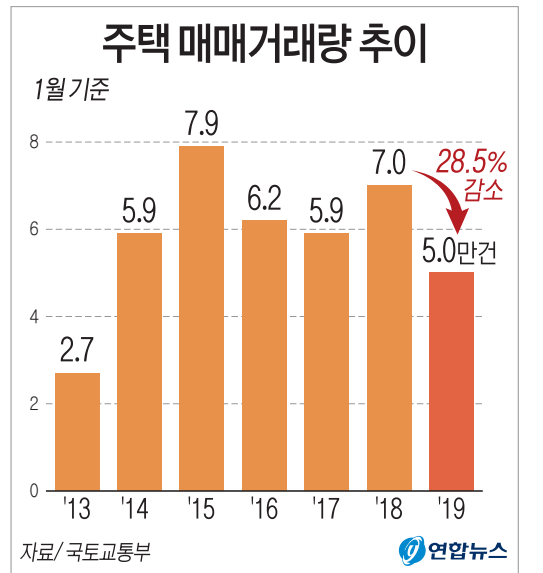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주택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286건으로 전년 동월(7만354건) 대비 28.5% 감소했다. 1월 거래량은 지난 2013년(2만7천70건)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천889건으로 지난 2013년 1월(1천213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택 시장에 대한 소비심리 역시 하강국면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90.0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주택과 토지 거래에 대한 심리를 설문 등을 통해 집계된 수치로 0~95는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국면 등



으로 구분된다. 이는 작년 9월 상승국면을 정점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울(91.8) 낙폭은 가팔라져 작년 8월(127.5)과 차이가 35.7포인트에 달한다.

특히 1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89.9로 하강국면을 유지한 가운데 서울(91.5)은 전월보다 0.5포인트 낮아졌고, 인천(93.2)은 3.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에서 95.5로 가까스로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김슬기 기자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가속도'

공정위, 대기업 참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승인

정부가 대기업을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대형 수소·가스 공급업체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만들어지더라도 수소 공급업체 간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한국가

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식회사(하이넷·HyNet)'가 기업결합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심형 수소충전소' 사업은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로 내놓은 만큼 공정위도 최대한 빠르게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복수 기업이 경쟁제한·시장독점·경쟁합리화 등 목적으로 결합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고 기간이 전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 요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하이넷 설립의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사결과를 지난 15일 회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심사요청

회사인 한국가스공사에게 관련 시장현황이나 참여회사 재무상황 등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 제출하라고 한 것 외에 별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요·공급 상황을 봤을 때 수소충전소에 공급될 수소는 일부에 불과한 만큼 다른 업체들이 하이넷과 협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면서 "다른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받거나, 수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성환 기자 hbkesac@

靑 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64) 이화여대 교수,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59)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보좌관은 대표적인 1세대 여성 과학자이자 생화학·프론티어 분야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라며 "탁월한 연구 역량과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토대로 과학

기술 정책 등 과학기술 분야의 개혁과 혁신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김 청장은 이론·실무를 겸비한 도시 설계 분야 전문가"라며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공주도 매립사업,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 개발을 본격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 기자 mskim@

24시 굿모닝 보석 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